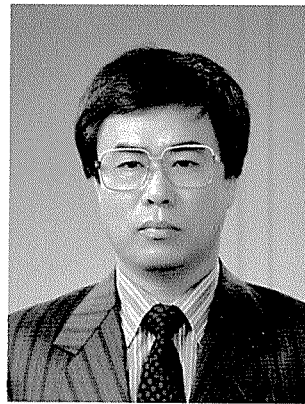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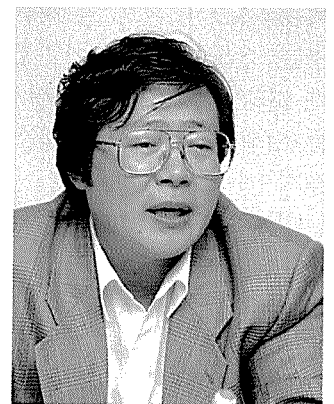
윤재선 고문



김용관 부지회장



조영연 부지회장



염석준 이사

우리가족 한마당

25년 전통... 무등산과 함께 숨쉬는 菓協 광주시지회



최준휴 지회장

무등산!

광주는 무등과 함께 깨어나고 무등과 함께 숨을 쉰다. 낮게 깔린 도시는 때로 무겁게 침묵하기도 하고 또 어느날 포효하며 일어선다. 충장로를 따라, 혹은 금남로를 따라 걷다보면 산을 타고 내려 영산강으로 뭉쳐지는 남도의 깊고 애절한 노랫가락이 들리는 듯도 하다.

동구 광산동 86번지.

대한제과협회 광주직할시지회의 현주소.

25년의 역사, 거침없고 소탈하여 만나고 있으면 곧 고향을 생각나게하는 광주사람들, 그 사이에 생동하는 과업체의 미래가 있는 곳이다.

요즈음 광주지회는 13대 최준휴(풍년제과) 지회장시대를 맞아 더욱 활기에 차있다. 지난 8월 그동안 개인적으로 행해지던 봉사활동을 지회차원으로 끌어 올린 과우봉사회 결성은 지회가 세운 또 하나의 금자탑이 될 것이고,

90년에 공식출범한 공동구판사업부도 이제는 정상궤도에 올랐다.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회원들의 위업이 아닐 수 없다.

광주지회의 과우신용협동조합과 공동구판사업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79년 설립한 과우신협은 현재 89억 7천만원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다. 공동구판사업부 또한 90년보다 2천만원이 늘어난 7천 5백만원의 자본금으로



김정식 이사



박판철 감사



강재수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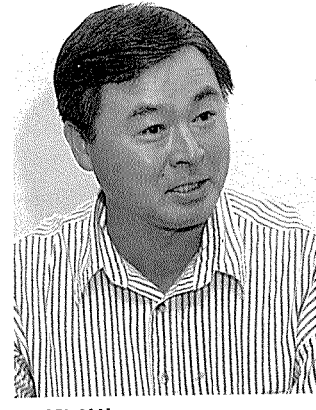
채선석 기술분과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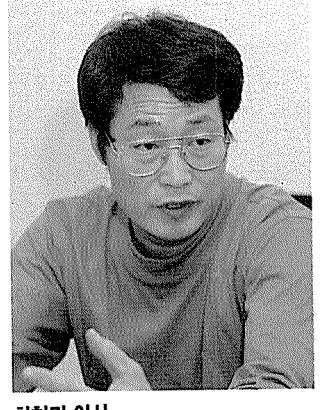
전상배 이사



이기남 이사



위병환 이사



최형민 이사

활동중이다.

사업부 자체 직원 넷, 차량 3대. 원부재료 100%를 취급하여 명실공히 광주과업계의 중추가 되었다.

현 강제수사무국장은 82년 지부 상무로 부임하여 당시 고르지 못하고 터무니 없는 재료값으로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을 타개하고자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어려운 중에도 운영해온지 어느덧 11년, 강국장은 당시 일부 회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차근차근 사업을 확대하여 이제 공동구매사업이 광주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였다.

공동구매 사업은 양질의 재료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회원간의 결속을 다짐은 물론 시장가격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업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회는 1969년에 태어났다. 태동기에는 광주도 타지방과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러나 초대 윤순기지부장과 50여회원이 주축이 된 광주지부는 상호협력, 화합하여 기술경영 방법의 개선에 노력하며 특히 영세업주들의 권익을 위해 애썼다. 그것이 오늘날 광주지회의 원동력이 되었다

고 한다. 임원과 실무진이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회원들은 무슨 일이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회 전통의 출발이 된 것이다.

현재 회원수 4백. 지회장과 부지회장(용궁 베이커리 김용관, 셋별제과 조영연), 15명의 이사진과 3명의 감사, 젊은층으로 구성된 8명의 자율위생지도원. 그리고 실무진으로 강제수사무국장, 이양선총무과장, 양유미씨. 이양선과장은 매일아침 6시반이면 출근해 낮시간의 대부분을 회원들을 돌아보는 일로 보내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래서 광주지회는 한점도 느슨함이 없다.

한편 광주지회의 주요 사업으로 기술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술인을 중시하는 전통과 항상 발전을 모색하는 기술인들의 노력이 나타나는 현장, 기술분과위원회는 채선석(궁전제과) 위원장과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로 5명의 자문위원을 두어 조언을 구한다.

위원회는 수시로 기술, 경영 세미나를 개최하여 광주과업계의 수준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YWCA가 주관하는 일반 여성대상 제과제빵교실에 강사를 맡아 대외적인 활동에도 힘 쓰고 있다. 또 지난 SIBA전을

대비한 자체품평회에서도 우수작품이 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던 바, 기술분과위원회는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 한다.

광주지회의 25년 역사는 다가오는 광주지회의 역사이다.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여 또 다른 발전을 창출하는 광주지회, 광주사람들이 인정이 많듯이 광주과업인들은 단합과 결속에서 거리낌없는 참여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공동구매사업이 가능하고 기타 여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회는 매년 과업인의 날 추계 체육 대회에서 또 한번의 단합된 힘을 과시한다. 역시 기술인들의 친목행사를 지회차원으로 성장시킨 과업인의 날은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광주지회의 진솔한 모습일 것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역동성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광주천을 가까이 두고 중심가의 한켠에 광주직할시지회는 조용히 자리잡고 있다. 심호흡을 하며 높이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서.

젊고 거대한 광주-.

〈김희득 記者〉



강 석 위생지도원



문연희 위생지도원



김한데 위생지도원